

34년 오직 한 길 빅토리 바디샵 벨플라워 플러튼 세리토스 롱비치 다운니 놀렉

LIFETIME WARRANTY! 최대 시설/ 최고 서비스/ 저렴한 가격

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(562)920-9745~6 17441 Clark Ave, Bellflower, CA 90706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오픈 특가 \$7.00/LB

aci store

한국택배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
- 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/ 항공-해운 물류서비스
- *전자상거래-배대지-3자물류대행-한국역직구대행-전세계택배
- *개인소화물-귀국이사-미국내 화물/이삿짐 운송-수입수출통관

T.714.735.9277 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

깔깔 웃음

[현대판 붕이 김선달?]

한 골동품 장수가 시골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. 문간에서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아주 귀한 골동품이라 그것을 사기로 마음먹었다. 밥그릇을 사자고 하면 팔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개를 사자고 주인에게 흥정하니 주인이 기꺼이 그러자고 했다. 그렇게 해서 개를 샀다. 이제 밥그릇만 손에 넣으면 된다.

“주인장, 그 개 밥그릇까지 끼워서 샅시다.”

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,

“안 됩니다!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백 마리도 더 팔았는데요.”

[아주 특별한 대학]

1. 서울공대(서럽고 우울해서 공원에서 시간 보내는 노인)
2. 연세대(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는 노인)
3. 고려대(고상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돈 많은 노인)
4. 건국대(건강한 몸으로 국민연금 받고 사는 노인)
5. 방목대(방 안에 꼭 처박혀 소일하는 노인)
6. 동경대(동네 경로당에서 시간 보내는 노인)
7. 전국대(전철과 국철로 종일 시간 보내는 노인)

[의사와 구둣방 주인]

의사가 구둣방 수선하기 위해 구둣방을 찾았다. 구둣방 주인이 말했다. “아, 이거 도저히 고칠 수가 없겠는데요.”

“그래요? 알았습니다.”

의사가 구둣방 들고 나가려니까 구둣방 주인이 말했다. “200 달러입니다.”

“아니 신발을 고치지도 않았는데 왜 돈을 냈니까?”

의사는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.

그러자 구둣방 주인이 대답했다.

“당신도 전에 내가 당신 병원에 갔을 때, 내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었다면서도 진료비는 받았잖아요!”

[년센스 퀴즈]

종달새 수컷은 암컷을 어떻게 부를까? 지지배
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은? 재벌
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? 나이아가라폭포
개구리가 낙지를 먹어버리면 무엇이 될까? 개구락지
“나는 1위, 2위, 3위 보다 4위가 더 좋아!” 라고 말한 사람? 장모
머느리가 고추장, 간장, 된장을 만들다 잘못 만든 것은? 져장.
보내기 싫으면? 가위나 바위를 낸다.
문제투성이인 것은? 시험지
총각들이 좋아하는 감은? 색시감
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? 서 있는 남자

[병사의 이유 있는 변명]

위장 훈련 도중 나무 줄기로 위장해 있던 사병 하나가

갑작스럽게 움직이다가 장교에게 들켜고 말았다.

훈련 담당 장교가 소리쳤다.

“이 바보같은 놈! 네 놈 하나가 움직인 것으로 인하여 전 부대원의 목숨이 위태로워 진다는 것을 모르나?”

사병은 잘못을 시인하며 대답했다. “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저도 한 마디 하게 해 주십시오.”

“뭐야, 말해봐!”

“비둘기 떼들이 저를 목표물로 삼아 공격을 할 때에도 참을 수 있었었습니다.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제 바지에 다 오줌을 눌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. 하지만, 다람쥐 두 마리가 제 바지 가랑이를 타고 올라와 그 중 큰 놈이 ‘우리, 하나는 지금 먹고, 다른 하나는 겨울을 대비해서 저장해 놓자!’ 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들었을 때는……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”

[부러워]

화창한 가을날의 대학 캠퍼스.
두 여대생이 한가로이 진한 해질녘 향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

여대생 1: “난 네 가슴이 부러워.”
여대생 2: “이거 뽕이야. 난 돈 잘 쓰는 니가 부러운데.”
여대생 1: “카드 빚이야. 난 오히려 난 돈 많은 아빠를 둔 니가 더 부러워.”
여대생 2: “저기 그제……아빠가 아니라 남자 친구야.”

타운뉴스 업소록

“리스팅 신청하세요!”

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

Phone: _____

주소명(한국): _____ 주소: _____

영문: _____ City: _____ State: _____ Zip: _____

업종: _____

-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속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
-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.



Tel 562.404.0027 Fax 562.404.0039
14311 Valley View Ave. #202, Santa Fe Springs, CA 90670

info@townnewsusa.com